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10월 2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1.(금)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0. 1.(금)	담당부서	철강세라믹과
담당과장	이경훈 과장(044-203-4290)	담 당 자	조은형 사무관(044-203-4292)

산업부,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 장관급 화상회의 참석

- 29개 회원국, 글로벌 공급과잉 현황 점검 및 장관급 보고서 합의
- 철강의 고부가화 · 저탄소화를 통한 공급과잉 해소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장관급 화상회의(10.1(금) 19:30~22:00)에 참석,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방안**과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장관급 보고서**를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이탈리아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의장), 미국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 등 **29개 주요 철강생산국 장관급 인사**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 세계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한 **각국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하였다.

<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개요 >

- **(출범)** '16.9월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16.12.16일 공식 출범
- **(대상)** G20 국가 및 관심있는 OECD 회원국
  * 대상 국가 중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는 참여 중단
- **(임무)** ① 회원국 간 철강 공급과잉 이슈에 대한 효과적 소통, 정보공유, 협력 증진
  ②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기능 강화 및 설비능력 조정 촉진

□ 이번 회의는 2부로 구분하여, ▵**1부**에서는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와 의장국인 이탈리아 철강협회(Federacciai) 등 **글로벌 철강업계 협·단체**를 초청하여 **코로나19 이후 철강산업 동향**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고,

○ **2부**는 **정부 대표간 비공개 세션**으로 **장관급 보고서 문안,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철강산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주영준 실장은 ①한국은 **세계 제6위 철강생산국**으로, 현재 **코로나19 영향과 공급과잉** 등 글로벌 철강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 2020년 국가별 조강생산능력(백만톤, OECD) : ① 중국 1,157, ② 인도 143, ③ 일본 129, ④ 미국 121, ⑤ 러시아 88, ⑥ 한국 78 등

○ ②특히 **작년 세계경제가 유례 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조강생산능력 확대**로 인해 **공급과잉 규모가 커진** 데 큰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 공급과잉(백만톤, 생산능력>수요) : ('16) 779 → ('17) 644 → ('18) 547 → ('19) 519 → ('20) 568

○ ③아울러 세계 철강산업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차대한 공동 과제 앞에 놓여 있는바,

- 앞으로 글로벌포럼을 통해 철강산업의 과거 양적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친환경·고부가화에 기초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혁신기술 개발,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주요 철강생산국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 개요

※ 2021년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 장관급 보고서는 회의 종료 후 별도 배포, 포럼 홈페이지인 www.steelforum.org에도 공개 예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은형 사무관(☎ 044-203-42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 개요**

□ **(개요) '16년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16.9) 합의*에 따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6.12.16일 출범**

* '16년 G20 정상선언문 31문단 : (...) 우리는 철강 및 여타 산업에서의 공급과잉이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임을 인지한다. (...) 이를 위해 우리는 G20과 관심있는 OECD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OECD의 협조를 받아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 형성을 통해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

□ **(회원국)** G20 국가, (관심 있는) OECD 국가 등 총 **29개국***

* '21.9월 현재 참여 국가(29개국)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EU,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대상 국가 중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니는 참여 중단

○ **(의장국)** '20년 의장국은 한국·EU, '21년 의장국은 이탈리아

* 지역, 선진국, 개도국 균형 등 고려하여 매년 재선정

○ **(운영위)** G20 의장국 및 7대 철강생산국으로 구성

* '21.9월 현재 이탈리아(의장국), 일본·미국(부의장국), EU, 브라질, 터키, 러시아, 한국 등

□ **(임무)** ① 회원국 간 공급과잉에 대한 **효과적 소통, 정보공유, 협력 증진**
②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기능 강화, 설비능력 조정 촉진**

□ **(회의) 1년에 최소 2회 이상** 실무급 및 고위급 회의를 개최

* '21년에는 실무급 화상회의 2회(2월, 9월) 및 장관급 화상회의 1회 개최